방글라데시 총선 국제선거 참관기

글 · **박문진** munjiny505@kdemo.or.kr

선거 포스터가 걸려있는 브라만 바리야 시내

4년 전 인도여행을 할 때였다. 캘커타 마더하우스에서 함께 자원 활동을 하며 친해진 일본 친구들이 곧 방글라데시로 간다고 했다. 그 나라에 대해 무지했던 필자는 당시 다른 인도의 화려한 볼거리를 두고 왜 방글라데시에 가냐고 반문했었다. 매년 홍수로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지만 국민행복지수 만큼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 이것이 필자가 방글라데시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였고 얼마 전까지도 그랬다.

그러던 중 공정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이하 ANFREL)에서 이번 방글라데시 총선에 국제선거 참관단을 조직하는데 기념사업회에 정식으로 참가 요청을 해 왔다. 참가가 정해지고 아시아 국가들에서 나름 경험이 있던 필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틈틈이 방글라데시에 대한 정보를 모으며 준비를 시작하면서, 그 사회가 이해하기에 그리 간단치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야기는 서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 나라가 한 몸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글라데시의 현대사

영국령 인도가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된 후, 인도를 사이에 두고 있던 동서 파키스탄은 서로 다른 인종 · 언어 ·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었고 서파키스탄과 같이 이슬람교가 절대 다수임에도 동파키스탄은 벵골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며 불안한 동거를 하게 된다. 1971년 3월 다카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분리 · 독립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유혈독립전쟁을 거쳐 마침내 '뱅갈 사람들의 국가' 라는 방글라데시(Bangladesh)로 독립하게 되었다. 이때 방글라데시 독립을 이끈 것이 당시 파키스탄 의회에서 동파키스탄의 모든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아와미리그(Awami League, AL)로 현재까지도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방글라데시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쉐이크 무지부르 라만(Sheikh Mujibur Rahman,무집)이 있었다. 초대 수상이 된 그는 그러나 정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계속되는 경제 악화로 비판을 받게 된다. 결국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그와 그의 가족들은 암살당하고, 이후 군부를 등에 업고 1977년 방글라데시민족주의자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BNP)의 탄생과 함께 그 중심에 있던 지아우르 라만(Ziaur Rahman, 지아)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그러나 그도 1981년 반체제 세력에게 살해되고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은 다시 에르샤드(H.M.Ershad)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후 방글라데시의 핵심적인 두 정당인 BNP와 AL은 경쟁하듯 정권을 잡고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는다.

2006년 10월 BNP의 임기가 끝난 뒤 2007년 1월 개최하기로 했던 선거는 두 정당 사이의 치열한 정쟁으로 폭력사태를 부르며 연기되고, 급기야 군대가 나서 과도정부(Care Taker Government, CTG)를 수립하기에 이른다. 두 최대 정당의 총수들이 부패로 구속

ANFREL의 선거 참관단 사전 교육

되었다 풀려나고 계속해서 선거가 미뤄지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난해 12월 29일 방글라데시의 새 미래를 열기 위한 총선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총선에 유럽연합(EU) 선거 모니터링 그룹을 비롯해 국제선거 참관단의 참가자가 수백 명이 된다고 하니, 이번 선거가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사실인 듯 하다. 필자가 참여한 ANFREL의 선거참관단의 경우에도 18개국의 37개 단체와 기관에서 장기 참관단 20명, 단기 참관단 54명이 참여하였다. 선거참관단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선거참관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곳에 인권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거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유권자들에게 위협이나 투표의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참관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방글라데시 선거제도와 문화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언하기 위해 온 것이다. 방글라데시 도착 다음날에는 이와 같은 선거참관단 업무에 대해 사전교육을 마치고 각 팀별로 모여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필자는 파키스탄에서 온 아이말 칸 씨와 한조를 이루어 치타공 주의 브라만바리야라는 지역에 파견되어 총 6개 선거구를 담당하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7시, 모든 짐을 챙겨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할 통역사와 기사를 만나 브라만바리야로 향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향해

이번 선거에는 몇 가지 큰 변화가 보인다. 첫째,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개정된 유권자 등록제이다. 즉 선거권(18세 이상 성인 남녀)이 있는 이들은 투표를 위해 유권자로 등록을 하고 ID카드를 발급받도록 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처음으로 일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투표자 리스트에는 개인에게 부여된 투표번호와 주소를 포함해 심지어 사진까지 첨부되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등록과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선관위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다.

이러한 절차가 어찌 보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복잡한 제도일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각 정당에서는 미리 입수한 유권자 리스트에 기반을 두어 개별 유권자의 성명과 주소, ID와 투표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적은 안내지를 만들어 각 마을마다 다니며 나눠주고 있었다. 이 종이는 거의 모든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효과를 발휘했는데, 이 광경은 필자에게는 상당히 낯선 장면이었다. 종이에는 각 당의 로고와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 사진도 들어있었다. 유권자의 개인

정보를 정당에 사전 제공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종이가 단순 정보제공과 도움의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선거 캠페인으로 사용되는 것 같았다. 선거 캠페인이 전면 금지된 28일이나 선거 당일까지도 심지어 투표소가 있는 학교 운동장 내에 각 정당이 책상을 마련해 이러한 종이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그 종이에 적힌 자신의 ID카드 번호와 투표번호를 근거로 투표소를 찾고 투표를 했다. 심지어 어떤 유권자는 그 종이를 투표용지인줄 알고 투표함에 넣은 경우도 있었다. 아마도 종이에 사진이 있던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두 번째는 노우보트(no vote)제도 이다. 몇몇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우보트는 마음에 드는 유권자가 없을 경우 투표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노우보트에 투표함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의 동향으로 보아 물론 노우보트에 투표하는 이들의 비율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부분 역시 과도정부와 선관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크게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변화는 개표과정에 관한 부분이다. 선관위에서는 각 투표소 부스마다 2인 이상의 정당 관계자와 국내 선거 참관단을 배치하도록 했다. 일렉션 워킹 그룹(EWG)을 통해 선발된 국내 선거 참관단은 EWG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이들로 전국 모든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당일에 개표과정까지 모두 참관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개표는 개별 투표소 내에 배치된 모든 선관위원들이 모여 함께 진행하고, 두세 번의 검표 후 각 당에게 투표된 용지와 'no vote' 그리고 무효표 등을 정해진 봉투 안에 각각 따로 담아 봉하고 투표소의 감독관이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바로 각 투표소에 결과를 적은 종이를 게시하도록 했다. 물론 개표과정에는 참관 자격인 정당 관계자나 국내 참관단은 참여할 수 없고 단순 참관만 할 수 있다.

한 투표소 근처에서 유권자들이 BNP에서 마련한 안내소에 와 자신들의 주민등록카드로 투표 번호와 투표소가 적힌 종이를 받고 있다.

선거가 축제인 사람들

우리 팀은 냉각일인 28일 전까지 총 30회 이상, 60 명 이상의 사람들과 만나 인터뷰를 가졌고 그 외에도 찻집에서 식당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사람들과 비공식적인 인터뷰를 가졌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본 것은 새로운 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와 투표에 어려움이나 위협이 없는지, 그리고 그동안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등이었다. 놀랍게도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의 모든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CTG에서 연일 미디어

를 통해 선거광고를 하고 지역마다 가가호호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독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 방글라데시에 발전과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으며, 선거와 관련하여 CTG나 선관위의 활동에 대해서도 그 중립성과 공정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지난해 7월, 캄보디아 민주주의 교류단 일정으로 총선기간에 방문했을 때도 마치 총선이 축제인 듯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캠페인을 즐기는 모습에 놀랐던 기억이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그때의 캄보디아와 비슷한 인상을 받았다. 문맹률이 높고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당들은 알기 쉬운 상징을 사용해 정당을 홍보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대표 정당인 BNP는 '벼'를 그리고 AL은 '노카(방글라데시의 전통 배)'를 상징으로 하고 있고 실재 투표용지에도 정당의 상징이 그림으로 들어가 있어 유권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각 당의 지지자들은 거리거리마다 자신의 당을 상징하는 구조물들을 제작해 진열해 놓았고, 주요 도로마다 몰려드는 수십에서 백 명 이상 되는 정당 지지자들의 행렬 때문에 우리를 실은 차량은 계속해서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이들이 대다수인 지역에서 무엇이 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고 정열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또한 아침이면 신문 파는 가게를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저녁이면 TV가 나오는 찻집에서 가게 안이 모자라 밖에까지 의자를 두고 앉아 차를 마시고 TV뉴스로 선거소식을 접하며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선거를 향한 열망은 선관위에서 발표한 수치상으로도 드러난다. 등록된 전체 유권자수가 무려 81,130,973명에 이르며 방글라데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브라만바리야 지역 제 1선거구의 한 투표소에서 개표가 끝난 뒤 결과를 듣고 기뻐하는 지역의 아와미리그 사무소장과 지지자들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를 한 이들도 전체 유권자의 87%라는 유례없는 수치를 기록했다.

행복지수 1위의 방글라데시, 더 높은 희망을 찾아서

결과적으로 필자가 담당했던 브라만바리야 지역의 모든 6개 선거구를 비롯해 AL이 이끄는 대연합이 전체 300석 중 260석 이상을 차지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AL만으로 230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BNP는 30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쓰디 쓴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여기에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여성에게 할당된 45석을 더하면 결과는 더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선거 직후 선관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불복을 주장했던 BNP도 국제선거참관단들과 언론에서 선관위의 공정성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민심 역시 선관위를 옹호하자 오래지 않아 결과에 승복함을 발표했다.

물론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선거홍보 포스터가 투표소 바로 앞까지 진열되어 있거나 투표소 내부에 정당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홍보물을 가슴에 달고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로이 출입하고 있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관리위원의 훈련 부족으로 매우 혼잡한 상황이 야기되거나 심지어 너무 어두운 경우나 장애인의 경우에도 2,3층에 투표소가 마련되는 등의 문제점이 목격되었다. 특히 유권자의 50%가 여성임에도 문화와 종교의 영향인지 선거 캠페인 장에서 여성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행렬이 지나갈 때에도 멀찌감치 서서 지켜볼 뿐이었고 정당 관계자를 만나 각 당과 유권자의 정책에 대해 직접 들었다는 여성 유권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많은 여성 유권자들은 가족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의지에 따를 것이며 꼭 투표를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AL의 이번 승리는 세계 4위의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계 정당들이 큰 세력을 가지고 종교와 정치를 연계해 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이 이를 원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들이 가장 중요시 한 부분은 빈곤을 악순환 시키는 물가상승과 정부의 뿌리 깊은 부패였다. 쉐이크 하시나가 비록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부분을 제대로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언제 국민들이 다시 칼레다 지아에게 돌아설지 모를 일이다. 1972년 방글라데시를 비종교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한 당시 헌법 정신을 살리고 빈곤층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면, 방글라데시는 민주주의 성장이 가능한 이슬람 국가로서 전 세계에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 것이다.

글 **박문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사업단